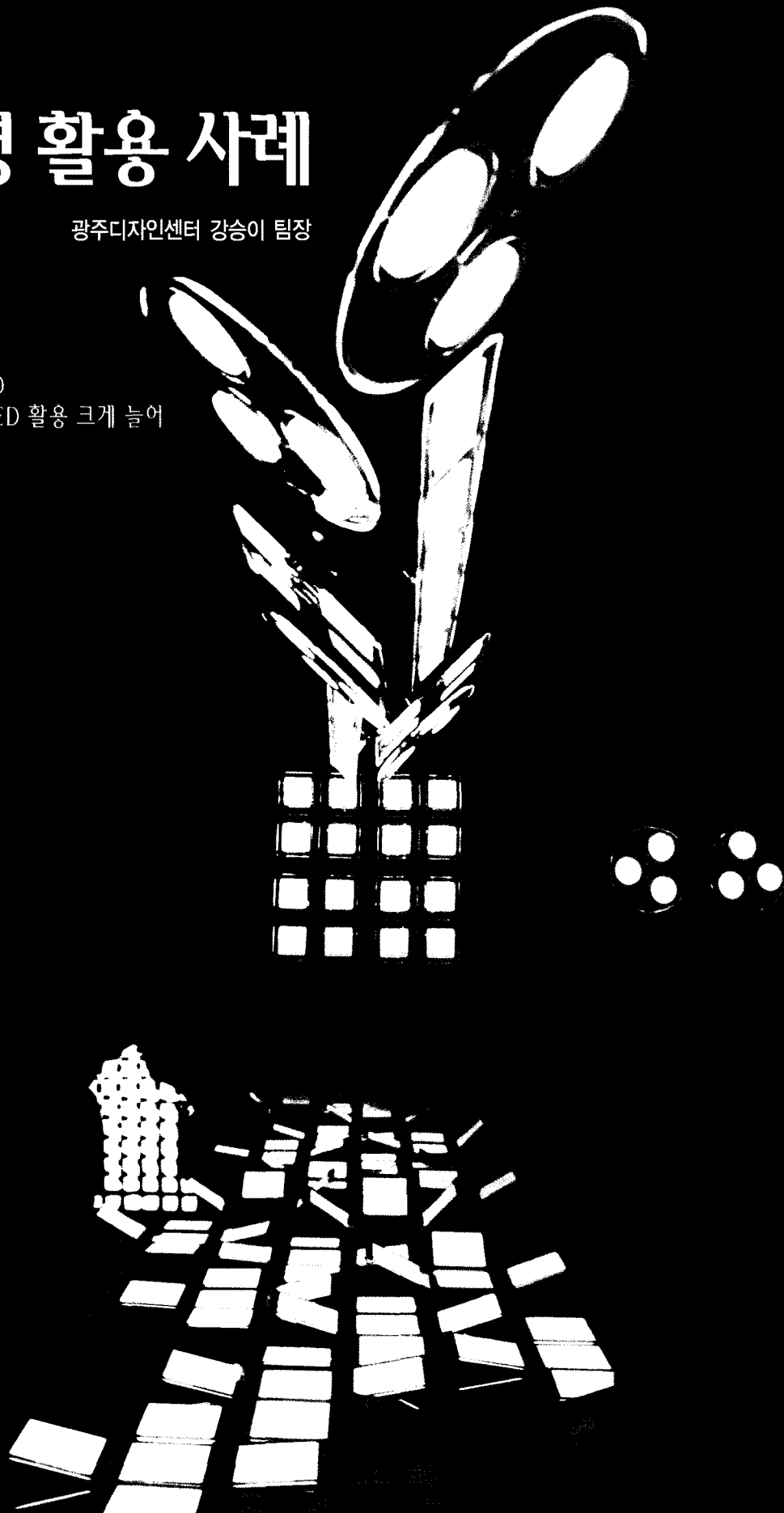


LED 조명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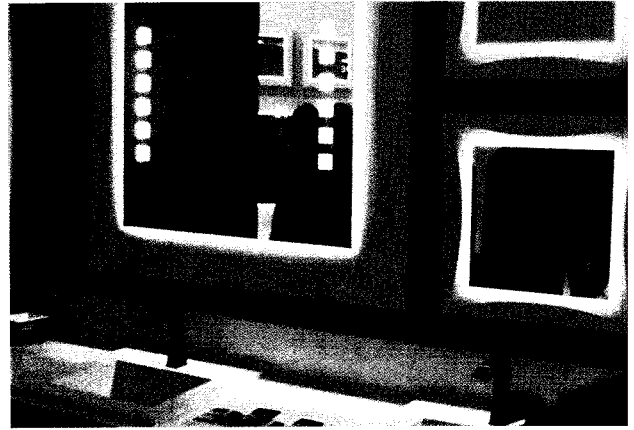
광주디자인센터 강승이 팀장

감성디자인을 주도하는 LED
주방 · 욕실 · 가구제품에 LED 활용 크게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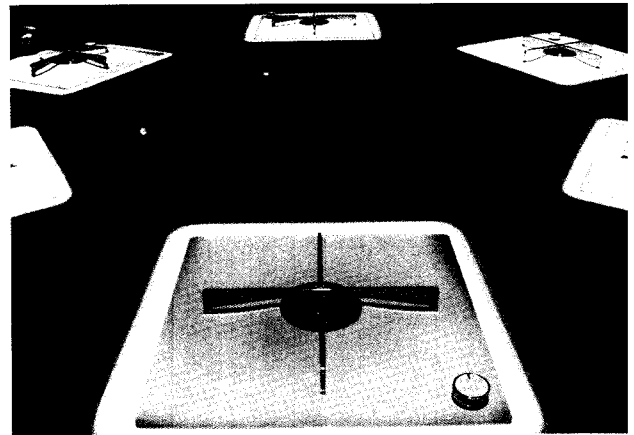


LED가 가구·주방·욕실용품의 디자인트렌드를 바꾸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요소인 LED가 '감성디자인'을 강조하는 소비자들의 Needs를 채워주면서 생활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 해마다 4월이면 전 세계 가구업계, 디자이너들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다. 세계 최대 박람회로 꼽히는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2010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는 모로소(Moroso), 마지스(Magis), 카텔리니(Catellini), 카르텔(Kartell) 등 유명 관련업체가 총출동, 기술·기능과 LED를 적용하여 감성디자인을 강조한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화두를 반영했다.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감성디자인·에코&그린. 이번 박람회에서 가구·주방·욕실 등 생활제품 분야에 녹아있는 2010~2011 디자인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

디자인에 관한 조형성은 물론 전반적인 가구·주방생활 가구와 브랜드 경향이 모던함과 미니멀리즘, 폐자재와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성(에코/그린)을 강조했다. 또한, LED와 다양한 컬러디자인을 앞세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눈에 띄었다.



욕실-감성조명



욕실-샤워기 조명

욕실-샤워기 조명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이라는 천재지변이 있었지만, 지난 4월 19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박람회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총 참가업체 수는 2,499개 업체. 세계적인 경기흐름을 반영한 탓인 지 지난해 2,723개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실험적인 컨셉의 디자인과 향후 디자인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주방·욕실분야 제품디자인은 IT와 LED·에코분야 등 신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제품들이 다수 선보였다. 미국 주방가전 전문업체 월풀(WHILPOOL)은 새로운 제품군 '글래머 레인지(GLAMOUR RANGE)'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글래머 레인지 라인은 호브, 오븐, 냉장고 세 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됐으며 어느 주방이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밝고 트렌디한 컬러가 특징으로, 표면에 광택까지 더해져 우아한 감각이 돋보임. 이는 파스텔톤의 다섯가지 컬러를 선보여 세계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컬러트렌드를 주도할 전망이다.

독일 라이히트(LEICHT)사는 LED 조명 기술이 결합된 찬장 '앙비앙스'를 출시했다.



조명과 제품디자인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리함과 조명이 주는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 제품으로, 선반 아래쪽에서 비추는 LED 조명이 특징이다. '앙비 앙스'는 조명을 공급하는 전기선이 겉에서 보이지 않게 알루미늄 자재 안에 완전히 내장된 형태로 디자인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주방이 단순한 조리과 식기를 세척하고 정리하는 작업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거실과의 이어지는 열린 공간으로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주방의 기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주방가구 스나이데로(SNAIDERO)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목적 주방가구 '코드(CODE)'를 모듈식으로 구성된 주방가구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독특한 색감을 강조하는 '코드 컬러(Code Colour)'와 자연적인 소재 및 모양을 특징으로 하는 '내추럴(Code Natural)'의 두 가지 컨셉으로, 코드는 주방의 수납공간이 때로는 거실의 책장과 같이 이용될 수 있어 새로운 공간을 연출이 가능하도록 시도되었다.

이탈리아의 'DADA' 등은 '빌트인' 개념의 주방에 LED 조명을 적용한 렌지후드 등 한층 밝아진 환경의 주방을 연출한다. 또, 씽크대와 냉장고, 식탁 등에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패턴디자인을 적용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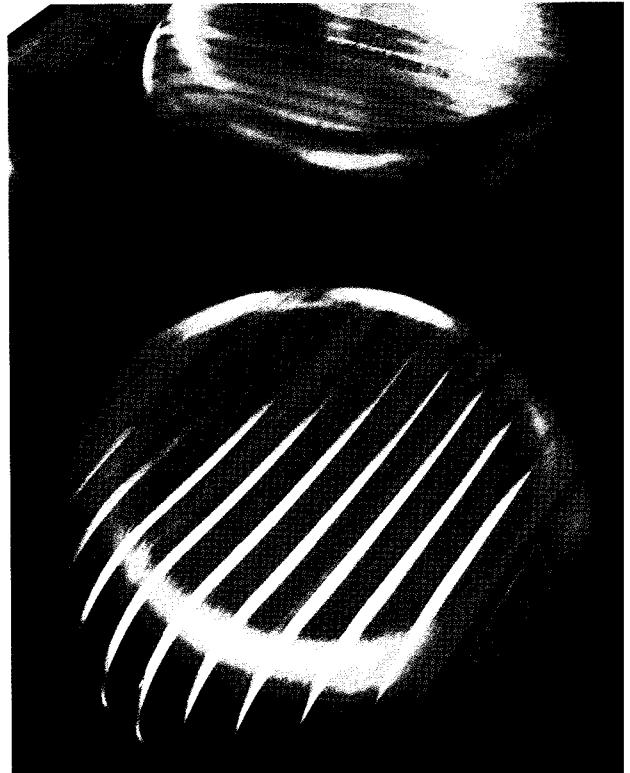
특히 주방의 각종 버튼 등은 원터치 방식으로 심플함을 더하고, 각종 수납장은 물론 주방의 수도꼭지 등도 개폐식으로 디자인, 혁신적인 컨셉의 제품들을 선보였다.

욕실용품에서 LED 조명은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의 욕실 인테리어가 LED 조명이 더해져 '감성디자인' 기반의 은은한 공간을 연출하는 전통성과 모던함이 조화를 이룬다. 특히 샤워공간과 거울 등에 직·간접 조명을 연출하여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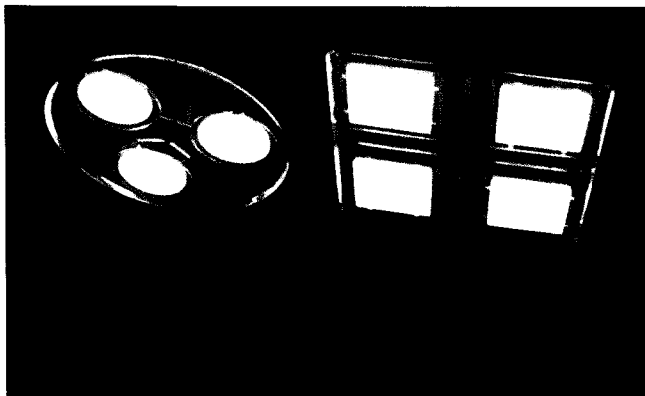
이밖에 생활조명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나무소재와 LED를 결합, 새로운 개념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나무 소재를 이용한 의자는 컬러풀한 LED조명을 적용하여 의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기능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500여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홍규씨 등 각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이면서도 실험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슈퍼스튜디오에는 기능성 조명기구 등 다양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다국적기업 필립스는 새로운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OLED와 IT기술을 접목시킨 조명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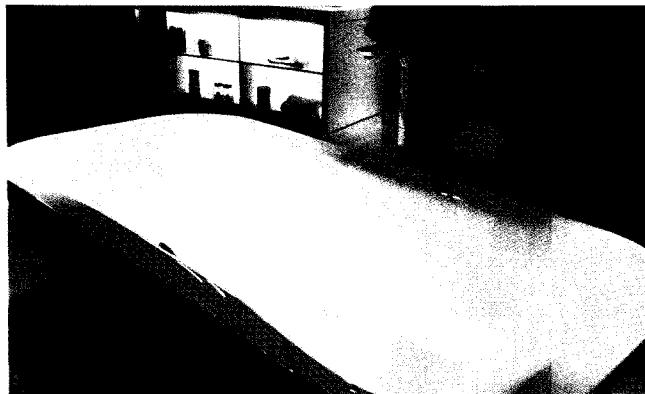
한편, 이탈리아어로 '페어(Fair)' 라는 피에라(the Fiera)가 공식 행사가 열리는 중심 전시장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피에라의 공식 전시로는 살로네 델 인터네치오날레 모빌레(Salone del Interzionale Mobile)를 비롯, 살로네 사텔리테(Salone Satelite)와 유로쿠치나, 국제육실전, 가구부속 전시 등이 열렸다. 이 가운데 프레스와 참관객의 관심은 역시 글로벌 가구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신제품 컬렉션을 발표하는 살로네 델 모빌레 전시였다. 살로네 사텔리테는 세계 각국의 신예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전시로 역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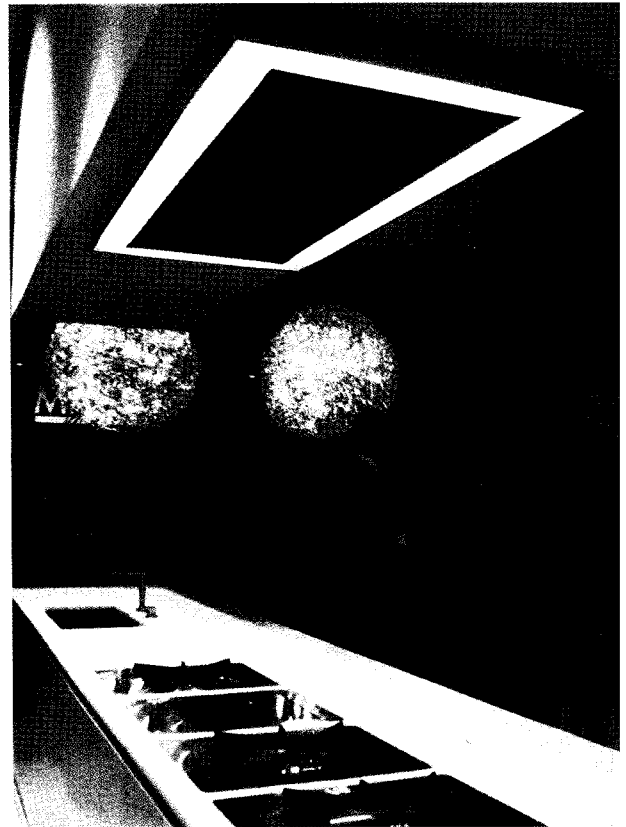
나무의자와 LED



OLED 조명-스탠드



목조-조명



렌지후드와 조명